

‘구본욱號’ KB손보, 순항... 지주사 비은행계열 기여도 1위

작년 순익 7529억... 35% ↑
자산·순익, 국민은행 이어 2위
장기보험 경쟁력, 신상품 등
적극적 대응으로 판매 늘어
‘회사가치 성장률 1위’ 기대감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KB손해보험이 지난해 KB금융지주 내 비은행 계열사 순익 기여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주 계열사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올해 새롭게 취임한 ‘구본욱 호’의 순풍이 기대된다.

KB손해보험은 최근 KB금융그룹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자산과 순익의 측면에서 KB국민은행에 이은 2위를 기록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해 순익의 7529억 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한 것이다. KB국민은행(3조2615억 원)을 제외한 비은행 계열사인 KB증권(3896억 원), KB국민카드(3511억 원), KB캐피탈(1865억 원) 등을 제치고 순익 1위를 달성했다.

특히 KB금융의 비은행 계열사 전체 순익 1조3704억 원 가운데 보험사인 KB손해보험과 KB라이프생명의 순익 합산만 1조91억 원을 기록했다. KB금융지주 전체 순익(4조6319억 원)에서 약 22%를 차지하면서 보험 부문의 성

장이 두드러졌다.

금리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시장환경 변화로 KB증권, KB국민카드, KB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들이 부진을 거듭해 수익 규모가 들쭉날쭉한 상황에서도 KB손해보험은 꾸준히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일 “2023년에는 장기보험의 경쟁력 있는 신상품 출시와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장기보험 판매가 늘었다”라며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를 안정화가 이어지면서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에 맞춰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주력했다. 유병자 보험, 질병보험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 강화와

매출 확대로 CSM은 8조 원대로 상승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비율(K-ICS)은 216.1%로 전년과 비교해 27.8%포인트(p) 개선됐다.

지난해 KB손해보험의 CSM은 8조 5180억 원으로 전년(7조9450억 원) 대비 7.2% 증가했다. CSM 확보에 도움이 되는 보장성 보험의 원수보합료가 2021년 7조2323억 원, 2022년 7조8401억 원, 2023년 8조3834억 원으로 지속 상승한 점이 주효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미래 이익창출 기반인 CSM 또한 큰폭으로 증가했다”라며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FVPL(당기순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자산가치 증가 및 글로벌 주식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투자순익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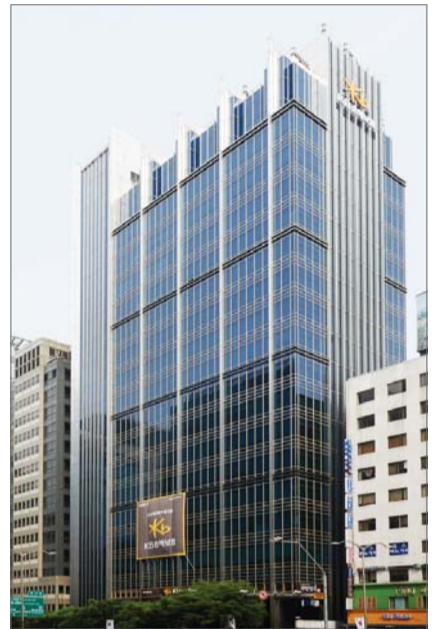
호실적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취임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의 연착륙은 물론 ‘실적 순풍’이 기대된다. 구 대표가 올해 초 ‘회사가치 성장률 1위’ 달성을 목표로 내세운 만큼 지난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구 대표는 2024년 상반기 경영전략 회의에서 손해율·유지율과 같은 경영 효율지표, 신계약 CSM으로 대표할 수 있는 미래가치지표, 보유고객·우량고객과 같은 고객가치 지표를 모아 ‘회사

가치’로 정하고 회사가치성장률 1위를 경영목표로 삼은 바 있다.

구 대표는 “KB손해보험은 2015년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KB금융그룹의 선진화된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며 핵심 계열사로 당당히 자리잡았다”라며 “KB손해보험만의 최적의 색을 찾고 완벽하게 조합하는 과정을 위해 ‘회사가치성장률 1위 달성’과 ‘조직문화 변화 관리의 완벽한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손보 본사.

카드 News

삼성카드 해외결제수수료 면제 iD 글로벌 카드 출시

삼성카드가 해외 결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담은 신상품을 공개했다.

◆ 연 2회 공항 라운지 서비스
삼성카드의 여행, 쇼핑 부문에 집중한 ‘삼성 iD 글로벌 카드’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해외수수료 면제 혜택을 탑재했다.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해외 온·오프라인으로 결제한 금액의 2%를 월 최대 30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 50만원 이상 충족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국내·외 공항라운지를 연간 2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어 삼성페이를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월 최대 2만원 할인을 적용한다. 이 밖에도 ▲여행 ▲쇼핑 ▲온라인 간편결제 ▲일상영역 등에서 결제금액의 1%를 할인하고 구독, 멤버십 비용의 50%를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 봄나들이 고객 위해 국립수목원 티켓 할인

KB국민카드가 봄나들이 고객을 위해 국립수목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 추첨 통해 상품권 100만원 지급
KB국민카드는 국립수목원 입장료 50% 캐시백 및 경품 추첨행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4일까지 ‘KB페이 국립수목원 예약서비스’를 통해 수목원을 방문하면 입장료의 50%를 돌려준다. 행사 대상 수목원은 ▲국립수목원(광릉숲)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 등 3곳이다.

KB페이로 예약을 완료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만원권(3명) ▲BBQ 황금올리브치킨(10명) ▲GS25 편의점쿠폰 3000원(500명) 등이다.

현대카드 상품 서비스 개선 위해 소비자 패널 16명 운영

현대카드가 상품 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 문제점 및 아이디어 발굴
현대카드는 ‘2024 현대카드 소비자 패널’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 패널은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했다. 지원자 중 1차 서류 전형 통과한 대상자에 한해 온라인 면접을 진행했다. 총 16명의 소비자 패널을 선정했다.

소비자 패널은 ▲20대 2명 ▲30대 6명 ▲40대 4명 ▲50대 2명 ▲60대 2명으로 구성했다. 전 연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시니어 고객 및 시각장애 고객을 패널로 선정해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밸류업 기업에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밸류업 참여·지배구조 개선 유도
감사인 주기적 지정면제 방안 추진



회계전문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상장사가 참석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사진)은 “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이미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자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주환원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담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2018년 11월 시행된 신뢰부감사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기업이 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증권선물위원회)이 직접 감사인

을 지정한다. 이 제도는 2017년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사태 이후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기적 지정제가 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는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평가위원회’를 꾸려 감사인 선임·감독 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을 일정 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과 연계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표창’을 받는 경우 지정 면제를 위한 지배구조 평가 시 가점을 주기로 했다. ‘밸류업 표창’은 내년 5월 신설되는 상이다.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한 기업 중 우수한 10여개사에 수여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와 주기적 지정 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사이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정면제를 위한 구체적 평가 기준과 면제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쳐 2분기 중 확정하고, 지정면제 근거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실제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밸류업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DL이앤씨,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현대차 연구원 통해 성능검증 완료
배터리 종류 관계없이 10분 내 진압

DL이앤씨는 중소기업 탱크테크와 함께 세계 최초로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급상승하는 ‘열 폭주’ 현상을 보인다. 특히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보호팩으로 덮여 있어 일반적인 소화 약제로는 진압이 매우 까다롭다. 화재 진압에는 짧게는 1시간, 길게는 8시간까지 소요된다. 소방대원이

직접 화재 차량에 접근해야 하는 데다 재발화 가능성도 높아 대규모 재난으로 확대될 위험도 존재한다.

DL이앤씨가 선보인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전기차 하부 천공(穿孔) 후 배터리에 직접 물을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차별화한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화재를 자동으로 인지하고 진압을 지시하는 ‘중앙 관제 시스템’과 직접 화재를 진화하는 ‘진압 장비’로 구성된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물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시 중앙 관제 시스템은 이를 감지하고 화재가 발생한 차량 위치로 진압 장비를 이동시킨다. 이어 진압

장비는 강력한 수압을 통해 터빈을 돌려 드릴을 작동한다. 이 드릴은 별도의 전원공급 없이 수압만으로 2분 안에 차체 하부와 배터리에 구멍을 뚫고 물을 분사해 화재를 신속하게 진화한다.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은 현대자동차 성능테스트 및 방재시험연구원 ‘전기차 실물차량 화재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을 완료했다. 리튬이온과 리튬인산철 등 전기차 배터리 종류에 관계 없이 10분이면 화재를 완전 진압할 수 있는 성능을 입증 받았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은 DL이앤씨와 탱크테크가 건축물 내 고객 안전을 최우선



DL이앤씨가 중소기업 탱크테크와 함께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건물용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작동 모습.

/DL이앤씨

으로 고민한 끝에 탄생한 혁신 기술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인 불안감을 크게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